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Ito Chuta's Art view and the Contents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Miryong J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Ito Chuta's view of art and art-related content described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Among the people mentioned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istory of Japanese art is Ito Chuta, this report on findings, which focused on his activities in the Meiji era and his perception of worldwide architecture, has been made.

[CONTENTS] His perception of art (or architecture) has a deep association with his trip to visit worldwide architecture in the Meiji era. His trip lasted for three years and three months, starting from China and India and followed by Italy, Greece, and America, and the Yungang Grottoes were introduced 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The paper focused on Chuta's comparison of the style of Yungang Grottoes with the architecture of Horyuji and then reviewed the Horyuji-related part of the history textbook published in the Meiji-Taishō era.

[RESULTS] After returning to Japan after his trip, he came up with a new architectural model which contrasted with The Tree of Architecture by Banister Fletcher and unfolded the theory of architectural evolution based on nationalism. His theory of architectural evolution suggested an evolutionary methodology that extracts the so-called "principle of evolution" from the history of world architecture and that Japanese architecture should take it.

[KEY WORDS] Ito Chuta, Horyu-ji, The Theory of Architectural Evolution, Yungang Grottoes,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B5A07094395)

* **Corresponding to** Miryong Ji (Lecturer, Department of Art Theo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mail : ikemirei@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이토 추타의 예술관과 일본 국사교과서 고미술 서술과의 상관성에 관한 검토

지미령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이토추타(伊東忠太)의 예술관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안에 기술된 고미술 서술과의 상관성을 찾기 위함이다. 이토 추타는 일본미술사 성립과 관련해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논문은 이토 추타의 메이지기 활동과 세계건축여행을 통한 인식의 형성과정에 주목했다.

[연구 내용] 추타의 건축여행은 3년 3개월간 중국, 인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아메리카 등지를 유람했고, 운강석굴을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논문은 추타가 운강석굴의 양식과 호류지 건축을 비교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메이지-다이쇼기에 발행된 국사교과서 내의 호류지 관련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결론] 귀국 후 추타의 활동은 플레처의 ‘건축의 나무’에 대비되는 새로운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둔 건축진화론을 펼쳤다. 그의 건축진화론은 세계 건축의 역사 속에서 소위 ‘진화의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건축이 취해야 한다는 진화주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주제어] 이토 추타, 국사교과서, 호류지, 건축진화론, 운강석굴.

I. 서 론

국사학(國史學)은 자국의 역사를 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구축된 서술체계이다. 그 모습은 몇 개의 과정을 거치고, 복수 세력의 벡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를 구성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자국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단순히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이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서술되었음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다. 일본미술사 성립기반의 근저에서 생겨난 일련의 활동과 작용을 이해하고, 역사교과서 내의 미술[예술]과 관련한 서술양상을 파악해 현행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의 미술사 서술과의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근대사 관련 연구는 그동안 일본어, 창가, 독본, 역사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성과가 나왔으며, 더 나아가 연구분야가 세분화되는 발전성을 띠고 있다. 특히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미술사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내의 고미술 관련 서술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메이지기 일본미술사 성립에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인 이토 츠타(伊東忠太)의 미술[건축]예술관, 특히 호류지 건축을 통한 인식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건축관[예술관]이 메이지-다이쇼기의 중등 역사교과서 내의 고미술 서술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은 특히 츠타가 메이지기 세계건축학[해외고적조사]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역사교과서 역시 츠타의 세계여행 전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II. 세계건축여행과 호류지건축론

1. 이토 츠타의 해외건축여행

이토 츠타(伊東忠太, 이하 츠타)는 게이오3년(1867)에 태어나 메이지25년(1892)에 제국대학을 졸업했다. 메이지29년에 고사사보존회(古社寺保存會)의 최초의 9인 위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오카쿠라 텐신과 함께 일본건축사·동양건축사·건축보전 분야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토 츠타의 경우 미술사 연구자들보다 건축사에서 주목했지만, 건축사나 미술사의 용어 규정 및 성립과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츠타가 작성한 논문, 필드 노트, 저서 등은 수천 건에 달한다. 이 중 츠타가 필드조사 당시 작성한 필드 노트는 74권(16 × 10cm) 정도가 전하고 있다. 74권의 필드 노트 중 본 논문에서는 제1차 해외 필드 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토 추타의 해외 필드 노트
<Table 1> Ito Chuta's Overseas Field Notes

자료 년대	자료명칭
1901년7월4일 - 8월21일(M34)	渡清日記, 紫禁城實測帳
1902년3월29일 - 1903년11월30일	南船北馬 天1/天2/地/人
1902년5월23일 - 9월21일	南船北馬
1902년4월10일 - 6월6일	제1권 淸國, 自北京至張家口
1902년6월7일 - 9월27일	제2권 淸國, 自張家口經龍門至西安
1902년9월30일 - 12월8일	제3권 淸國, 陝西 四川
1902년12월9일 - 1903년3월27일	제4권 淸國, 自重慶至貴陽
1903년4월7일 - 6월4일	제5권 淸國 自貴陽至新街
1903년6월 - 9월	제6권 인도, 버마緬甸~봄베이孟買
1903년9월 - 12월말	제7권 인도
1904년1월 - 3월(M37)	제8권 인도
1904년	제9권 터키
1904년3월 - 8월	제10권 터키, 이집트
1904년10월 - 12월	제11권 시리아, 아나톨리아(小亜細亞)
1905년2월 - 4월	제12권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1905(M38)년5월 - 1906년4월경	제13권 영국·미국·일본(滋賀, 奈良, 山口, 愛媛, 兵庫)

출처. Hashitera, 2003: 95-96 표 2 필자 재정리

* M: 메이지明治.

1901년 7월, 이토 추타는 일본인 처음으로 해외유람을 겸해서 중국 자금성의 필드워크 조사를 실시했다(34세). 조사는 이토 추타를 비롯해 공학사 쓰치야 준이치(土屋純一), 오쿠야마 츠네고로(奥山恒五郎) 등 7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고, 추타는 연구팀의 인솔자이자 역사적 관찰을 담당했다. 조사는 촬영담당인 오가와 카즈마사(小川一真)를 제외하고 모두 각자의 대학에서 조사과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자금성 조사에 대한 결과물은 추타의 『도청일기(渡清日記)』(1898), 『자금성실측장(紫禁城實測帳)』(1901), 오가와 카즈마사의 『청국북경황성사진첩淸國北京皇城写真帖』(1906) 등으로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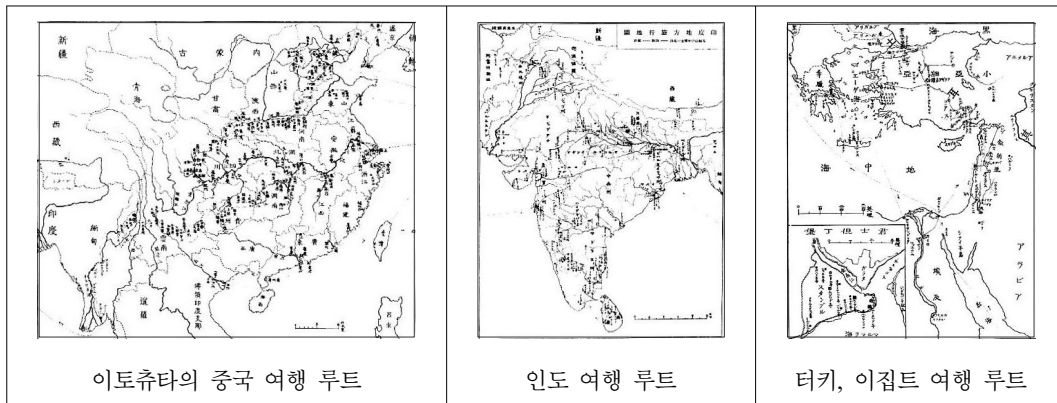
『도청일기』는 날짜별로 사실이나 감상을 적은 기록물이고, 『자금성실측장』¹⁾은 조사노트이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중국 자금성 조사는 7월 4일, 추타 일행은 히로시마현의 우지나(宇品) 항

1) 도청일기와 자금성실측장은 1982년 복각본 『이토추타건축문헌(伊東忠太建築文獻)』에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1982년 복각본을 자료로 사용했다.

에서 일본우편선인 사쿠라마루(佐倉丸)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7월 12일에 베이징에 도착한 후, 14일부터 일주일간 이화원(頤和園), 옹화궁(雍和宮), 공자묘 등을 견학했다. 7월 21일, 자금성 출입을 허가받은 후 약 20일간 자금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순서는 천안문 북쪽에 있는 오문(午門) 조사를 시작으로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과 후궁인 건청전, 교화전, 곤녕궁 등 자금성의 주요 건물이 조사 대상이었다. 츠타의 <자금성실측장>에는 일부 스케치와 감상, 실측 수치와 전각 배치, 지붕 장식 등이 기술되었으며, 이후 츠타의 만화에 등장하는 건축과 요괴 등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토 츠타의 본격적인 조사는 자금성 조사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02년 3월에 떠난 세계의 건축물 견학이었다. 3년 3개월간 지속된 이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은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승격에 있었다. 당시 제국대학에서는 구미(歐美) 연수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수승격의 의무사항이었다. 츠타는 아시아를 견학한 후 서구를 통과해서 귀국한다는 조건으로 문부성과 제국대학의 허락을 받았다. 세계건축물 견학은 중국, 버마, 인도, 스리랑카, 터키,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아메리카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견학 일정은 중국에서 15개월, 인도 등지에서 9개월, 터키·이집트 등에서 10개월, 구미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츠타는 견학 일정을 균등하게 지역별로 체류기간을 배분하지 않고, 본인의 관심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



[그림 1] 이토 츠타의 여행 루트

[Figure 1] Ito Chuta's Travel Route 출처. Ito, 1936-37(1982년 복각본)

세계건축물 견학에서 최고의 성과는 운강석굴 발견일 것이다. 1902년 6월 16일, 츠타 일행은 대동(大同)에 도착하여 이틀 후 지현(知縣)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운강석굴을 발견했다(1902년 6월 18일경). 츠타는 중국 운강석굴을 발견한 후 그의 조사노트(2권)에, ‘운강석굴의 불상, 장식, 문양 등이 호류지와 같으며 토리파 불상과 부합하다’고 기술했다. 더해서 ‘호류지

불상의 고향을 찾았다'고 기술해 호류지 불상의 원류를 운강석굴로 보았다.

츄타에게 있어 세계 건축여행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츄타의 세계 건축유람은 조사보다 여행의 성격이 강하다. 그의 필드조사 노트에 기록된 것들 역시 유적에 대한 깊은 연구조사가 아닌, 첫인상, 새로운 발견 등에 대한 감상을 단편적인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시, 그는 여행 중 기술한 단편적인 내용을 일본으로 보내 건축학회 기관지나 건축잡지에 차례로 발표했다. 발표문들은 학술적이기보다는 행정에 따른 순차적 나열성이 강했다. 귀국 후, 츄타는 『서유육만리(西遊六萬里)』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주요 내용이 괴담, 재미있는 일화 등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츄타의 세계건축유람은 1905년 6월 27일, 밴쿠버를 떠나 요코하마에 도착하면서 3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림 2] 운강석굴 발견 당시
[Figure 2] Yungang Grottoes 출처. 일본건축학회 출판본(1930)

2. 운강석굴과 호류지건축론

이토 츄타의 경우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역시 엔타시스 양식의 기원설이다. 츄타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초고(1893)에서 호류지 중문의 기둥이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그리스 건축의 엔타시스와 연결된다고 기술했다. 그는 구체적인 증명이나 설명 없이 서양문화의 연결선상에 호류지가 있고, 서양문화와 비교해 일본문화가 뒤떨어지지 않고 동등하다는 호류지관(法隆寺觀)을 제시했다. 츄타 이외에도 동시대의 쿠로가와 마요리(黒川眞頼)나 이시이 케이키치(石井敬吉) 등이 호류지의 세부건축 수법과 그리스 고전건축의 형식적 유사성을 언급한 점(Suzuki, 2003: 19-20) 등으로 미루어 당시 이러한 논의들은 일정 부분 수용되었던 것 같다.

츄타의 호류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건축여행 중 기록한 필드 노트에서도 등장한다. 운강석굴을 발견하면서 호류지의 불상과 석불군을 비교 언급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92년 6월 16일 대동(大同)에 도착했다. 다음날 지현(知縣)을 방문하니 서쪽으로 30리 가면 운강에 북위시대에 해당하는 고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부청(府庁)의 관사 1명과 병사 1명의 안내를 받아 말을 타고 약 20킬로를 서쪽으로 달렸다. 무주천(武周川)을 건너니 강의 북벽을 따라 약 1km, 멋진 석불군이 펼쳐져 있었다.

…… 불상의 모습, 장식 수법, 문양 등은… 실로 우리 호류지식과 똑같다. 토리불사(鳥仏師)의 작품과 부합한 것이다. 벽화와 같은 형태이고 금당의 건축기법과도 부합한다. 실로 의외 중의 의외이다. 나는 호류지의 고향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쁜 나머지 점심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단번에 조사했다(Ito, 필드노트 중).

귀국 후 추타는 운강석굴 조사결과를 『지나산서운강의 석굴사(支那山西雲崗の石窟寺)』(『국화』197-198호, 1906)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논문은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그는 전체 장에 걸쳐 석굴사의 어느 부분이 다른 지역의 무엇과 비슷하다는 식으로 서술을 했다. 즉, 그는 세부적 요소들을 석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특장점을 보지 않고, 여타지역과의 비교 대상으로서 바라봤다. 이러한 시각은 그의 『일본 불사건축의 원류』(193-)에서도 다시 재현된다.

운강석굴의 건축적 성질은 돈황과 비교하면 중국적 취미가 더해서 지붕, 기둥, 장식문양 등이 호류지와 부절(符節)을 맞춘 부분이 적지 않다. 희랍계와 비교해 보면 코린트식 및 이오니아식 기둥머리[柱頭]가 있고, 기둥은 거칠지만 엔타시스적 느낌이 있다. 간다라계로 인정할 만한 계형미(梯形楣), 중인도 전래로 볼 수 있는 두공이 있다. 기원은 충분 명료치 않지만, 서역계의 화문이 있다. 돈황의 천개는 호류지식 천개에도 적용되었다(Ito, 193-: 19-20).

추타는 운강석굴이 돈황과 중국 고유의 수법이 더해진 것이고, 의장은 서아시아식으로 장엄했다고 봤다. 용문석굴이 정련된 형태인 것에 비해, 운강은 조말하지만 용문에는 없는 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음을 언급했다. 추타가 운강석굴을 설명하면서 굳이 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을 언급한 연유는 운강석굴을 호류지의 종착점이 아닌 경유지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추타가 그의 필드 노트에 호류지 불상의 고향을 찾았다고 한 것은 원류를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발점으로서 운강석굴이 아닌 서역[간다라]에서 시작해 운강석굴을 거쳐 호류지에 이르는 엔타시스의 루트를 찾았다는 의미이다. 추타에게 있어 세계건축여행은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엔타시스 루트의 완성에 있고, 그 종착점인 그리스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 된다.

추타가 호류지(또는 엔타시스)에 집착하는 것은 그의 『호류지건축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세계건축여행을 떠나기 전에 3번에 걸쳐 『호류지건축론』을 썼다(1893, 1896, 1898). 호류지건축론에서 그는 호류지 건축을 ‘일본건축의 기원’, ‘동양미술의 정수’로 평가하면서 건

축 역시 미술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해서 세간에 건축의 아름다움을 이해시키는 것이 집필목적이라고 밝혔다. 즉, 그는 일본 건축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호류지를 사용했다. 특히 호류지 불탑과 다른 불탑을 비교하면서 호류지 불탑을 ‘형식과 변화가 풍부하고 수법이 지극히 웅건하다’라고 기술해 호류지를 일본미술의 정수에 위치시켰다(Ito, 1893: 319-332).

흥미로운 점은 츠타는 귀국 후 호류지의 엔타시스 양식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시기 그는 세계건축여행에서 기록하고 채집한 자료들을 모아 『시나 건축 장식』(1941-45, 전5권)을 간행하거나 ‘건축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다. 츠타가 이러한 스탠스를 취한 까닭은 인도나 서아시아에서 엔타시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연유가 크다. 더해서 일본 내에서는 호류지 재건론의 논쟁이 일면서 고건축에 대한 학문적 풍토가 실증주의로 바뀌었고, 따라서 엔타시스 루트가 무용지물이 된 것 역시 한몫을 했다.

이후 츠타의 호류지 엔타시스론은 인문학자인 와츠지 테츠로(和辻哲朗)가 『고사순례』(1919)를 발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고건축과 고미술을 관람하고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이 저서는 당시 일본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와츠지는 호류지의 엔타시스 양식을 높게 평가했다. 나아가 그리스의 문물은 인도와 중국을 거쳐 일본에 전달되었지만, 인도와 중국에는 자취가 남아 있지 않고 유일하게 일본 호류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시각은 엔타시스로 대변되는 이토 츠타와 일본미술의 순수성으로 대변되는 오카쿠라 텐신의 이론을 혼재했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와츠지의 『고사순례』는 당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표방하던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호류지 재건론 역시 재조명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사그라들었다.

Ⅲ. 일본 국사교과서 고미술 서술과 이토 츠타와의 상관성

1. 일본 국사교과서의 고미술 서술

일본의 미술사 교육의 시작은 보통 1901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교과서 관련 1차 요목(要目, 1901)이 공포되었다.²⁾ 이는 일본 국사교과서의 미술사 기술의 중요기점이 되며, 이토 츠타가 1차 해외조사(1901-1905)를 떠난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츠타가 출발하기 전(검정

2) 본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일본 국정교과서제 변천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872년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면서 검정교과서가 채용되었다. 이후 1872년 학제공포를 통해 교과서 자유발행이 행해졌고, 81년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개신제, 83년 인가제, 86년 검정제를 거쳐 1903년부터 1945년까지 국정제를 시행했다. 이외에도 1901년 1차 요목 발표, 1911년에 2차 요목을 발표했다(文部科学省(MEXT) 学制百年史).

제), 출발 당시(1차 요목 발표), 해외조사 중(1903년 국정교과서)으로 바뀌었다. 단, 매년 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1900년 전후, 1901년 이후, 1911년(2차 요목) 이후(메이지-다이쇼)로 압축해 내용을 살펴보겠다.

일본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시기에 국사교과서를 저술한 대표적 인물로는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 츠지 젤노스케(辻善之助), 가츠우라 토모오(勝浦範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동경제국대학 역사학과 교수들로 가츠우라가 1900년 이전, 하기노가 메이지 전기시에 걸쳐 국사교과서 저술을 담당했다. 츠지는 국정교과서 시기에 저술을 담당한 후 국사교과서 검토위원으로 승격되는 등 1930-40년대를 거쳐 현대의 일본교과서의 초석을 다졌다. 이들 3인이 대표 저자로 참여한 국사교과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萩野由之, 辻善之助, 勝浦範雄 저술 국사교과서
<Table 2> History Textbooks Written by Hagino, Tsuji, Katsuura

	년도	저자명	교과서명	출판사	비고
1	1895(M28)	勝浦範雄	皇国史要 상·하권	吉川半七	문부성검정교과서
2	1897	상동	皇国小史	상동	
3	-	萩野由之	중학국사 상·중·하	敬業社	
4	1902(M35)	萩野由之	중학국사	富山房	-
5	1905(M38)	상동	중학국사	富山房	신정정판
6	1905	辻善之助	新編国史教科書	金港堂書籍	
7	1907(M40)	萩野由之	新訂중학국사 全	富山房	新訂發行
8	1910(M43)	辻善之助	수정 신편국사	金港堂書籍	정정4판
9	1912(T1)	萩野由之	新制중학국사	富山房	
10	1920(T9)	辻善之助	重修신편국사	金港堂書籍	정정14판
11	1926(T15)	상동	개정 신편국사	상동	정정 18판
12	1926	萩野由之	수정일본역사 여자학교용	富山房	
13	1927(S2)	辻善之助	新編国史提要 全	金港堂書籍	-
14	1934	상동	신편여자국사	상동	-
15	1936(S11)	상동	三訂新編国史	상동	

출처: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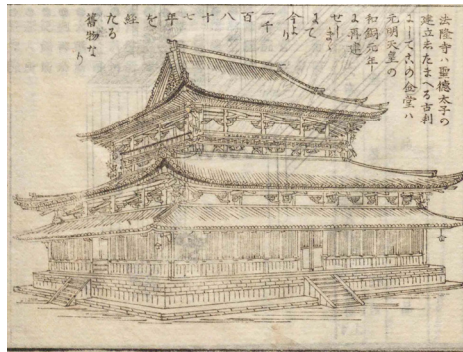
* M: 메이지, T: 다이쇼, S: 쇼와

이들 국사교과서 중, 이토 츠타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인 호류지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1987년(M30, 小林義則) 간행된 중등 일본역사 교과서의 경우, 태고략사-상고사-중고사-근고사로 시대를 구분한 후 시기별 내용은 인물과 사건 위주로 목록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구분은 어디까지나 천황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한 것이다. 나아가 공예·미술·무기 부분은 목차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불교와도 구분했다. 고바야시(小林)는 중고사 시기까지의 일본의

공예와 미술을 약 3쪽에 걸쳐 압축해 기술했다. 내용은 주로 나라시대의 아쿠시지(藥師寺) 역사 여래나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쇼쇼인(正倉院)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정도이다. 화공에 대한 언급은 헤이안 초기 야마토 회화를 창시한 거세파(巨勢派)의 가계와 화풍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불교 부분에서는 불교의 종파와 구카이(空海), 사이쵸(最澄)의 존재를 언급하는 수준으로 불교예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이 시기에는 공예·미술, 혹은 불교미술에서 호류지(法隆寺)를 소개하는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Kobayashi, 1897: 54-59).

나아가 현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쇼도쿠 태자(聖德太子)보다 소가(蘇我) 가문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었다. 쇼도쿠태자 부분은 태자에 의해 공예 기술이 진보했고, 백제와 고려에서 승려들이 건너와 사찰 건립과 불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했다. 호류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예가 진보해 이 시기의 제품은 지금도 존재한다. 호류지의 석가상은 가장 유명하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했다(Kobayashi, 1897: 76-77).

가츠우라(勝浦)는 『황국사요(皇国史要)』(1895) 제2장 30절부터 32절에 걸쳐 쇼도쿠 태자의 주요 사건을 기술했다. 고미술과 관련해서는 “고려의 승려와 장인들이 건너왔고 건축·조각·기와·불화 등을 제작했으며, 인도와 중국의 공예품이 유입되었다”라고 간단히 기술했다(Katsuura, 1895: 31-34). 『황국소사(皇国小史)』도판편(1897)에서 호류지 금당을 삽입하고, “쇼도쿠 태자가 건립한 고찰로 금당은 간메이(元明) 천황 708년에 재건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즉, 1차 요목(1901)이 발표되기 이전의 역사교과서는 천황중심의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호류지에 대한 관심은 논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호류지

[Figure 3] Horyu-ji 출처. 황국소사(1897)

하기노(萩野) 역시 『중학국사』(1897)의 천황의 연대순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서력(西曆)이 아닌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건국체제로 계산해 천황의 통치기간을 표기했다. 1900년 이전의 다른 검정교과서들은 고고학적 사실주의에 입각해 ‘신대(神代)’를 생략했

으나, 하기노의 1897년본은 신대가 삽입된 점이 특징이다. 신대 삽입은 이후 국정교과서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요시하면서 당연시되었고, 현대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하다(Yi, 2013: 419-421).

하기노의 중학국사는 천황중심인 만큼, 쇼토쿠태자 관련 언급이 축소되고 호류지 관련 기술도 찾아보기 어렵다(Hagino, 1897: 20-26). 1차 요목이 발표된 이후 간행된 하기노의 1905년본 중학국사는 목차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건국부터 청일·러일전쟁까지 다루고 있고, 현재의 역사교과서 목차와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고대는 다이카개신(大化改新) 전후로 나누어 기술하고 호류지 관련해서는, “건축과 공예는 지대하게 진보했다. 경문(經文)은 한문의 힘이 필요해 학문 역시 진보하게 되었다. 호류지의 금당과 불상은 스이코(推古) 천황 시대의 기술이다.”라고 서술했다. 이와 함께 1쪽에 걸쳐 호류지 금당에 안치된 불상의 광배 명문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Hagino, 1905: 16).

츠지(辻)의 『신편 국사』(1905 초판)는 고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세와 근세 관련 분량이 늘어났다. 쇼토쿠 태자와 문화 관련 기술은 중국·조선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 외교, 문학, 예술에 공적을 쌓았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술하고 호류지 관련 서술은 기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시대의 문화를 하나의 장으로 독립시켜 쇼쇼인(正倉院)과 도다이지(東大寺)를 부각시켰다(Tsuji, 1905: 8-9, 25-27). 1920(大正9)에 발행한 츠지의 『신편 국사』나 『신편 여자국사』는 제2차 요목(1911)이 발표된 이후 발행된 교과서이다. 이 시기에 발행된 국정교과서(1909년, 1911년 판)는 메이지37-8년(1904-5년) 전역과 평화조약, 한국병합을 첨가해 국체관념과 충군애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츠지의 1920년본은 전체적으로 현대 일본 역사교과서의 목차 구성과 유사하고, 호류지 관련해서는 ‘학문예술의 발달’이라는 하나의 절로 독립시켜 기술했다.

쇼토쿠태자는 불교의 흥륭에 온 힘을 기울였다. 많은 사원을 건립했는데, 그중 사천왕사와 호류지가 유명하다. 불교의 흥륭, 절과 탑 건축이 성행하면서 회화·조각·자수·직물·주금 등의 기술도 진보했다. 조선반도에서 사공(寺工), 화공(畫工), 불공(佛工)들이 건너왔다. 구라츠쿠리노 토리가 가장 유명하다. …… 이 시기는 학문과 예술이 현저히 발달해서 스이코시대라고 부른다(Tsuji, 1920: 24-25).

호류지 관련 서술은 대동소이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미술 서술이 독립된 절로 기술되고 호류지 전경 사진을 전면에 소개하는 등 고미술에 대한 비중이 이전 국사교과서보다 높아졌다. 특히 삽화의 증가는 이 시기에 발행된 국사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면서 동시에 강조된 이미지를 통해 하나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의 국사교과서 내의 고미술 서술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현행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각 장 말미에 고미술 관

런 내용을 서술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장에서는 미세하게나마 호류지 관련 서술이 증가하고 관련 삽화들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토 츠타의 미술사 서술과 진화론

츠타가 세계건축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발표한 논문들을 근거로 일본 국사교과서 내의 고미술, 혹은 호류지 관련 서술이 증가했다는 직접적인 자료들은 찾기 어렵다. 다만, 1·2차요목(1901, 1911)이 발표된 전후의 국사교과서를 츠타가 귀국한 1905년을 기점으로 살펴봤을 때, 1911년 전후로 내용적 변화가 감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츠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시기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었고, 여기에 호류지 건축이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이 국사교과서 내의 고미술을 서술하기 위해 참고했을 만한 미술사 서적 중, 『고본일본제국미술약사(稿本日本帝國美術略史)』(1901, 이하 고본)에서 츠타가 서술을 담당한 부분만을 살펴보겠다. 고본은 1901년(M34) 초판 발행 후 7년 뒤(1908, M41) 재판이 발행되었다. 재판본은 건축이 각 장에서 독립해 「건축지부(建築之部)」라는 제목으로 권말에 수록되었다. 건축을 제외한 다른 분야들은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츠타가 담당한 건축은 대폭 수정되었다. 초판본과 재판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본』의 호류지 관련해서는, 옥충주자(玉虫厨子)와 금구장식에서 보이는 초당양식은 동로마나 아라비아의 양식과 일치하고 아미타불상의 문양은 그리스의 덩굴장미 문양과 유사하다고 지

<표 3> 이토 츠타의 『고본일본제국미술약사』 건축 부분 기술

<Table 3> The Architectural Section of the Manuscript Brief History of Imperial Japanese Art

	1901년 초판			1908년 재판		
	초기의 미술		순정일본건축의 시대/신도건축	불교전래 이전		순정일본건축의 시대/신도건축
제1편	스이코천황시대	寧樂朝 건축	중국 수당문물의 유입, 나라 · 헤이안불교	아스카시대(스이코시대)		중국육조 · 당문물의 유입/ 나라 · 헤이안불교
	덴지천황시대			나라시대	전기	
					쇼무천황시대	
제2편	간무천황시대		중국 송조 이후 문물 유입/선종 이후 건축	헤이안시대	전기	중국 송 이후 문물의 유입과 선종건축
	후지와라씨 섭정시대				본기	
	가마쿠라 막정시대				가마쿠라시대	
제3편	아시카가씨 막정시대			무로마치시대		명 · 청문물의 유입과 각종 건축
	도요토미씨 관백시대			아즈치모모야마시대		
	도쿠가와씨 막정시대			에도시대		

(출처. Kichise & Mishima, 2003: 100 표 1 재정리)

적했다. 츠타는 유사성에 대해 “동서예술이 직접 만난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1901: 43)라는 추측에서 “나는 이것을 보고 동서예술이 직접 만났다고 본다”[재판]라고 서술을 바꾸었다. 더해서 호류지 건축은 옥충주자나 금당, 불탑, 중문의 수법과 일치하므로 스이코천황 시대의 작품이 분명하다고 확인시켜 주었다(1908: 299-301). 호류지 건축시기를 스이코천황대로 보는 시각은 전후 상관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하기노의 『중학국사』(1905)나 이후의 교과서에 모두 이 시기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당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 호류지 재건과 관련해 츠타는 재건의 유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스탠스는 『고본』, 『호류지건축론』을 비롯해 그의 박사논문까지 이어진다. 이는 오카쿠라 텐신이 『일본미술사』에서 ‘호류지가 재건축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각과 대별되는 지점이다(Sekino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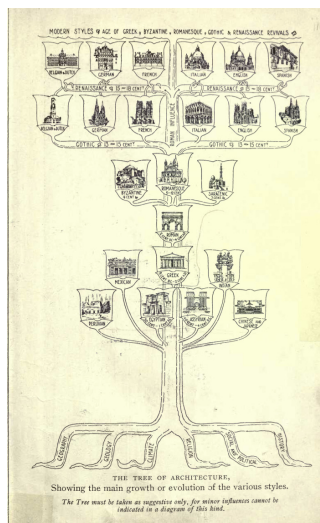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츠타의 엔타시스 루트의 완성을 통한 내셔널리즘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 논자는 아마도 당시 일본에 유입된 야토이들에 의해 설정된 서양건축의 위치에 대한 반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한다. 조시아 콘도르(Josiah Conder, 1852-1920)가 영국 건축을 최고 위치에 부여하고, 배니스터 플레처(1866-1953)가 세계 건축의 진화를 나무에 빗대어 묘사한 ‘건축의 나무’ 등은 츠타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플레처의 경우, “건축에 미치는 재료의 영향(The influence of Materials on Architecture)”이라는 논문이 1895년 RIBA의 실버메달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시가 시게츠라(滋賀重列)에 의해 번역돼 『건축잡지』(1904-1905)에 실리게 되었다. 번역문에 의하면, 플레처는 건축술이 예술로서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낡은 것을 부활시키는 진화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 새로운 양식이 되고, 이 새로운 양식에는 여전히 오래된 형식의 형태가 응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건축이 진흙이나 흙, 나무에서 돌 벽돌로 재료가 변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양식이 형성되어 간다는 의미에서의 진화주의를 설명했다.

플레처의 진화주의는 좀 더 발전해 건축이 오리엔트에서 시작해 이집트 → 그리스 → 로마 → 로마네스크 → 고딕 → 르네상스 → 역사주의 → 현재의 서양건축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인도·이슬람을 건축역사의 방계로 설정했다. 이 점이 츠타의 세계건축여행의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즉, 서양 건축의 원류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일본의 호류지는 엔타시스 루트의 시작과 완성점에 있는 대등한 존재임을 부각시켜 일본건축을 서양건축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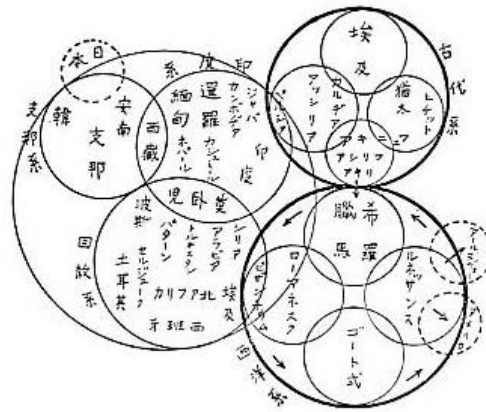
이토 츠타 자신이 플레처 논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는 기록들은 찾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 가와미치(川道)는 플레처의 논문과 츠타의 건축 진화론 사이에는 국가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관련성 내지는 병행성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Kawamichi & Hashitera, 1999: 284). 실제 츠타는 플레처의 ‘건축의 나무’에 대비되는 새로운 건축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발표한 『건축진화의 원칙에서 보는 나의 방건축(邦建築) 전술』(1909)에는

세계건축 모델을 고대계, 서양계, 인도계, 중국계, 이슬람계로 구분해 원 안에 배치했다. 이들 세 개의 큰 원 안에서 돌출된 작은 점선의 원들은 서양계의 아메리카와 아르누보, 중국계의 일본을 의미한다. 당시 츠타가 생각한 가장 선진화된 건축은 아메리카 건축과 아르누보이고, 일본 건축이 이에 비등하다는 츠타만의 건축의 진화론을 제시한 것이다. 아르누보나 아메리카 건축이 높이 평가받은 데에는 이들이 가장 늦게 등장한 새로운 양식인 점도 있지만, 츠타는 이에 대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Ito, 1909: 21)고 평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배워 새로운 양식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4] 건축의 나무

[Figure 4] A History of Architecture
출처. Fletcher(1901)



[그림 5] 이토츠타의 세계건축 모델

[Figure 4] Ito Chuta's World Architecture Model
출처. Ito (1909:39)

결국, 츠타의 건축진화론은 그의 연구성과와 건축세계여행 등을 바탕으로 나온 건축에 대한 그의 생각과 자세이다. 건축의 재료는 육체와 의장[意匠: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의장은 국격이나 역사성, 내셔널리티를 의미한다. 그는 국가 역시 건축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재료와 의장으로 이분해 진화주의를 언급했다. 연장선상에서 츠타는 건축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고자 했다. 그가 최고로 손꼽은 미술건축[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해 “국민의 기호[嗜好, 내셔널 테스트]가 발해서 예술을 형성하는 수법을 파류(派流)라고 한다”(Ito, 1990: 389)라고 규정했다. 풀이하자면, 건축을 예술화하는 것이 양식이고 그 양식을 형성시키는 것이 내셔널 테스트(national test)라는 의미이다(Kawamichi & Hashitera, 2002: 306). 이러한 기류 안에서 츠타는 호류지를 예술건축의 최정상에 위치시킨 것이다. 그의 시각은 일본이 서구에 속하지 못하는 계통과 지리

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역사적 우수성이 건축에서 드러난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이토츠타(伊東忠太)의 예술관과 일본의 국사교과서 안에 기술된 고미술 서술과의 상관성을 찾기 위해 그의 메이지기 활동과 세계건축여행을 통한 인식의 형성과정에 주목했다. 우선 3년 3개월에 걸친 츠타의 세계건축여행 중 최대의 성과는 운강석굴의 발견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츠타가 운강석굴의 양식과 문양을 호류지 건축과 비교해 그 원류를 찾고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메이지-다이쇼기에 발행된 국사교과서 내의 호류지 관련 부분을 검토했다. 메이지기 국사교과서에는 고미술 서술내용은 미비하지만, 2차 요목 시행 이후 서술내용이 증가하거나 삽화 삽입이 증가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논문에서는 호류지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이들 내용과 츠타의 호류지관(觀)과의 서술상 연결지점을 찾고자 했다.

귀국 후 츠타의 활동은 플레처의 ‘건축의 나무’에 대비되는 새로운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둔 건축진화론을 펼쳤다. 그의 건축진화론은 세계 건축의 역사 속에서 소위 ‘진화의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건축이 취해야 한다는 진화주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References

- Hashitera, Tomoko (2003). Chuta Ito's Documents Owned by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Institute of Oriental and Occidental Studies*, 36, 91-98.
- Ito, Chuta (1909). The future of Japanese architecture as seen from the principles of architectural evolution. *Architecture magazine*, 1.
- Kichise, Kazutaka & Mishima, Masahiro (2003). Forming the architectural history recognition of Chuta Itoh in Meiji-era. *Journal of Toyota College of Technology*, 36, 99-106.
- Kwamichi, Rintaro & Hashitera Tomoko (1999). On the theory of architectural evolution by Chuta Ito 1. The origin and the history of the theory.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525, 281-285.
- Kwamichi, Rintaro & Hashitera Tomoko (2002). On the theory of architectural evolution by

- Chuta Ito II. The significance and the effect.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554, 305-310.
- MEXT(n.d). *a hundred-year history of the school system*. Retrieved 2023.1.10. from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552.htm
- Sekino, Tadashi (1905). Horyuji Kondo Pagoda and Chumon Non-Reconstruction Theory. *Architecture magazine*, 218. 67-82.
- Yi, G. S. (2013).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 of Modern Japanes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Historical Knowledge.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27, 395-431.
- 九鬼隆一 外 (1901・1908). 稿本日本帝國美術略史. 日本: 帝國博物館. (Translated in English) Kuki, Ryūichi et al.. (1901・1908). *Manuscript Brief History of Imperial Japanese Art*. Japan: Imperial Museum.
- 鈴木博之 (2003). 伊東忠太をしますか. 日本: 王国社. (Translated in English) Suzuki, Hiroyuki (2003). *Do you know Ito chuta?*. Japan: Okokusya.
- 小林義則 (1897). 中等日本史. 日本: 文学社. (Translated in English) Kobayashi, Yoshinori (1897). *Japanese history-middle school-1・2*. Japan: Bungakusya.
- 勝浦鞠雄 (1895). 皇国史要. 日本. (Translated in English) Katsuura, Tomoo (1895). *Imperial history*. Japan.
- 辻善之助 (1905). 新編国史教科. 日本: 金港堂書籍. (Translated in English) Tsuji, Zennosuke (1905). *New Japanese history subject*. Japan: Kinkodo.
- 伊東忠太 (193-). 日本佛寺建築の源流. 日本: 雄山閣. (Translated in English) Ito, Chuta (193-). *The origin of Japanese Buddhist temple architecture*. Japan: Yuzankaku.
- 伊東忠太 (1936-1937, 1982). 伊東忠太建築文献. 日本: 龍吟社. (Translated in English) Ito, Chuta (1936-1937, 1982). *Ito chuta's Architectural literature*. Japan: Ryuginsya.
- 伊東忠太 (1990). 日本近代思想大系 19. 日本: 岩波書店. (Translated in English) Ito, Chuta (1990). *Modern History of Japan*. Japan: Iwanami.
- 萩野由之 (1897). 中學國史. 日本: 敬業社. (Translated in English) Hagino, Yoshiyuki (1897). *Japanese history-middle school-1*. Japan: Keigyousya.
- 萩野由之 (1905). 中學國史. 日本: 富山房. (Translated in English) Hagino, Yoshiyuki (1905). *Japanese history-middle school*. Japan: Fuzambo.